

젊은 생각으로 디지털라이프 주역을 꿈꾼다

NHN_최휘영_대표

'정보 검색'과 '게임'을 양대 축으로 삼아 인터넷 산업의 척후병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NHN. 젊은 생각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NHN의 최휘영 대표는 올해부터 국내 사업 부문을 맡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라이프 실현을 향해 떨리는 가슴으로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최대표에게서 설레는 고백을 들어본다.

경영인으로 신고식, 떨리는 가슴

10년 넘게 기자생활을 해온 탓일까. 최취영 대표의 말솜씨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매끄럽다. 뛰어난 언변으로 강한 신뢰감을 주는 덕에 그의 말은 무조건 믿어도 될 것만 같다.

기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기자를 천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만큼 한번 시작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합뉴스와 YTN의 취재기자를 거치면서 열정적인 나날을 보내던 그는 90년대 중반 인터넷 환경의 성장을 지켜보게 됐다.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새로운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제가 쓴 기사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신문과 방송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이 저를 자연스럽게 인터넷 산업 쪽으로 이끌었죠.”

인터넷 기업으로 옮겨온 후에도 온 열정을 쏟아 붓는 그의 근성은 여전했고, 그런 핵심인재를 회사가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NHN이 올해부터 국내와 해외를 분리한 2인 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대표 자리에 전격 임명된 것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자기가 몸담은 분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녹아들어 오늘의 그를 만든 것이리라.

경영인의 자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던 경우와 달리 갑작스레 중책을 맡게 되어 다소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대표는 기자로서의 경험들이 지금 자신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고 고백한다. 여러 생활 영역들을 가까이에서 접했던 경험은 포털 사이트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고. NHN이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개척자정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표의 무경험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대표의 미진한 부분을 훌륭히 보강해 주는 것은 바로 NHN의 이사진 시스템이다. 그를 포함해 해외 담당 김범수 대표, 이해진 전략담당 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이사진은 매주 화상 시스템으로 회의를 열어 탁월한 파트너십을 발휘한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최대표는 자신의 장점을 십분 살려 경영인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르는 중이다.

동시대인을 향한 설레는 고백

NHN에는 최대표를 닮은 일꾼들이 많다. 그가 인터넷 매체의 매력을 맛보고 단숨에 옮겨왔던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열혈파들이 NHN에 가득하다. 그들이 있기에 젊은 생각과 앞선 기술도 있

는 것이며, 세계 10대 인터넷 기업을 향한 꿈도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여세를 몰아 매진한다면 협회에서 진행 중인 매출 1조 클럽에 2008년 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터넷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최대표의 야심찬 계획을 입증하듯 올해 네이버와 한게임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믿지식IN’ 프로젝트를 내걸고 지식 품질에 대해서도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품질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지식검색 서비스, 블로그, 달력검색, 책서비스, 검색어 자동추천 서비스에 이어 믿지식IN 프로젝트로 또다시 네티즌의 폭발적 반응을 얻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NHN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게임 역시 ‘아크로드’를 오픈해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을 석권할 태세다. 3년의 제작기간 동안 100억을 투자해 개발한 아크로드는 유일한 토종 MMORPG(다중접속온라인게임)로서 3주 만에 누적회원수 100만을 돌파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활약뿐 아니라 해외진출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일본과 중국에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NHN은 한 단계 수준을 높여 올하는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을 공략할 예정이다. 게임 분야의 노하우 덕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최대표의 설명. 해외 사업 전체를 김범수 대표가 진두지휘하고 있어 더욱 집약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인터넷.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최취영 대표는 동시대인들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최상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들에게 디지털라이프를 선사하는 것은 그의 소망이자 NHN의 존재 이유이다.

“고객과 연애를 하는 기분으로 일을 한다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고객의 반응에 더 민감할 수 있고 직원들의 생산성도 높아질 겁니다. 고객과 함께 교감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객을 향한 최취영 대표의 프러포즈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지켜보는 일도 자못 흥미진진하다.

Tip NHN의 야심작 ‘아크로드’

3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NHN의 신작 온라인 게임 아크로드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방대한 세계관, 그래픽, 타격감을 자랑하며 ‘한국형 MMORPG의 완결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돼 5차례에 걸친 철저한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오픈 이후 급속도로 국내 게이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후 점차 일본과 중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